

# FTA의 도래에 따른 국제통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n Approach on the Global Commerce Activation by the Use of FTA

이승관(Seong-Kwan Lee)

충도 TP 선임연구

## 목 차

I. 서 론  
II. 통상환경의 변화  
III. FTA도래와 e-treade  
IV. FTA와 e-Trade 통상문제

V. FTADml 전략적 활용방안  
VI.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The rapid expansion of regionalism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blocs of the global economy, so that those countries not belonging to one or more blocs can be discriminated. Though signed on the bill of FTA with Chile, Korea is actually alienated from major stream of the blocs. Therefore, Korea government makes efforts to contract more FTAs with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Japan, others. FTA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method to secure expor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we need to exactly understand critical issues and the long-run effort of FTA.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important issues and potential strategi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 Korea's FTA with other countries. In these means,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e-Trade are closely related to global business chance. In these means, we should use FTA potentials for encouraging global commerce by e-Trade and develop e-FTA in the foreseeable future.

Key Words : FTA, WTO, e-Trade, NAFTA, EU, MERCOSUR, IT, e-Marketplace, ebXML, GPA, e-FTA

## I. 서론

최근 세계경제는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른 시공이 축소하여 교역량이 급격히 증대하는 가운데, 기술·정보 자체가 세계지역간 일반 상품처럼 거래되고, 교역상품의 환경성 문제가 부각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환경하에 WTO체제의 감시와 각종 라운드라는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 산업의 경쟁우위 요소도 변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현재 글로벌리즘의 물결속에서 시공간의 어떠한 장벽없이 자유로운 경제협력은 물론 국익을 이유로 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란 체결국간에 계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관세지역 그룹”이라 한다.<sup>1)</sup> 이는 상품 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5조에는 서비스분야 경제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FTA 후진국으로 불리울 정도로 FTA 확산 흐름에 뒤쳐져 있었다. 아시아, 남미를 중심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1990년대 들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에 대거 가세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발효로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 최대경제대국인 미국은 NAFTA를 활용하여 지역주의 체제를 다자주의체제인 WTO와 함께 세계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양측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도 지역주의 체제를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 무역정책의 국가 대 국가라는 쌍무적 협상 중심의 접근방식에 더하여 FTA와 국가 FTA간의 통합이라는 보다 다양화된 집단주의적 보호주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리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sup>2)</sup> FTA는 과거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요즘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FTA를 체결하면 회원국간 교역증대, 경쟁촉진,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WTO와 같은 다자간체제를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통상환경하에서 디지털 기술로 특징지어지는 정보기술 혁명시대를

1) FTA에 대한 정의는 학자, 기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다자규범인 GATT 제24조 제8항 (b)에 지시된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김세영박영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p.46

3) 김진섭, "FTAA의 추진배경과 역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세학회지」, 제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2, p.193.

맞아 서류 없는 무역시대를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최근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주관 사업자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인접 주요 교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명실상부한 전자무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자무역의 글로벌화 추진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전자무역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 II. 통상환경변화

### 1. 지역주의의 부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전의 GATT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sup>5)</sup> GATT체제가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완화 혹은 철폐 등에 그 중점이 주어졌다면, WTO체제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무역관련제도의 정비는 물론 정부의 반경쟁적 무역관련정책과 사기업의 반경쟁적 관행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교역 이외에도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와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로 자유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자체제와 비교해 볼때, 지역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의 회원국간 협정이므로 협상타결 소요기간이 짧으며, 각 체약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또 협상결과 이행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sup>6)</sup> 1990년대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동안 다자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던 미국이 다자체제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7)</sup> 한편 WTO(1995)와 OECD(1995), UNCTAD(1999), APEC(2000) 등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다자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8)</sup>

4) 이봉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협력강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4.p.96.

5) 정대철, "통상환경변화와 지방산업육성의 효율화",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2003, p.405

6) 이에 대해서는 J. Bhagwati(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in de Melo, Jaime and Arvind Panagariya(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참조

7) Bhagwati, J.(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in K. Anderson and R. Blackhurst (eds.),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Brighton : Harvester-Wheatheaf.

8) 이에 대해서는 WTO(1995), Regionalism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OECD(1995),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Synergy and Divergence, UNCTAD(1999),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nd the Integ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 Pannel Discussion, APEC(2000), The New Regionalism : Is it a

## 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상당기간 한중일, 한일, 한미간 FTA결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한-칠레간 FTA결정에 이어 한-싱가폴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FTA결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더불어 정부는 최근까지 FDI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FDI유입 실적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기업의 평가 및 향후 한국에서의 투자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다.

현재 한층 고조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의 FTA결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각국간의 국내 정치적 또는 산업상의 많은 이해관계를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NAFTA나 EU 등 타 지역경제공동체 국가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의 FTA결성은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에 앞서 경제적 대체성과 보완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FTA성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일 FTA논의에 있어 한국측의 최대 관심은 FDI 유치 여부이다. 그러나 정부출연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sup>9)</sup>, 일본의 관세수준은 우리보다 낮으며, 더구나 일본의 비관세장벽 및 한국제품의 낮은 품질수준 등으로 인해 한일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의 대일수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본재 및 핵심부품의 대일수입 급증에 따른 대일무역수지 악화 및 국내 자본재 산업의 기반 약체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한-칠레 FTA체결 1년 평가 및 일본의 동향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 칠레 투자확대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특히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조속히 칠레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칠레와의 교역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칠레는 EU, 멕시코, 캐나다,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10개의 FTA를 이미 체결하였는 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활발한 시장개척과 투자진출이 기대된다.<sup>11)</sup>

최근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양국간 FTA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일본이 광공업품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양보하여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인하를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말레이시아는 농업분야 개방분야를 새우, 과일의 일부 품목, 바나나

Building Block for Multilateralism 등 참조

9) 김양희·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Policy Analysis II 01-05)」, 2001.12.30

10) 전경련, "한-칠레 FTA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자체보고서」, 2005.5.29.

11) 안세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3.4.1., p.63.

등에 국한하였다.

또한 일본은 자동차부품, 인재육성 등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2004년 11월에 필리핀과의 FTA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의 협상도 마무리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태국과의 FTA협상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일본은 소극적인 농업개방정책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 철강 등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ASEAN 정상회의(2004년 12월)에서 FTA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ASEAN은 우리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수주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2)한국과 캐나다는 빠른 시일 내에 FTA체결을 위한 본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13)

〈표 II-1〉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국 가	현 황
한국-싱가폴	2003년 10월 산관한 공동연구 완료, 2004년 11월 협상종료
한국-ASEAN	2004년 8월 공동연구 종료, 2005년 4월 2차 협상
중국-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일본-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및 2005년 4월 FTA협상개시
일본-필리핀	2004년 11월 FTA협상타결
일본-말레이시아	2005년 5월 FTA협상 타결

자 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II. FTA의 도래와 e-Trade

#### 1. 전자무역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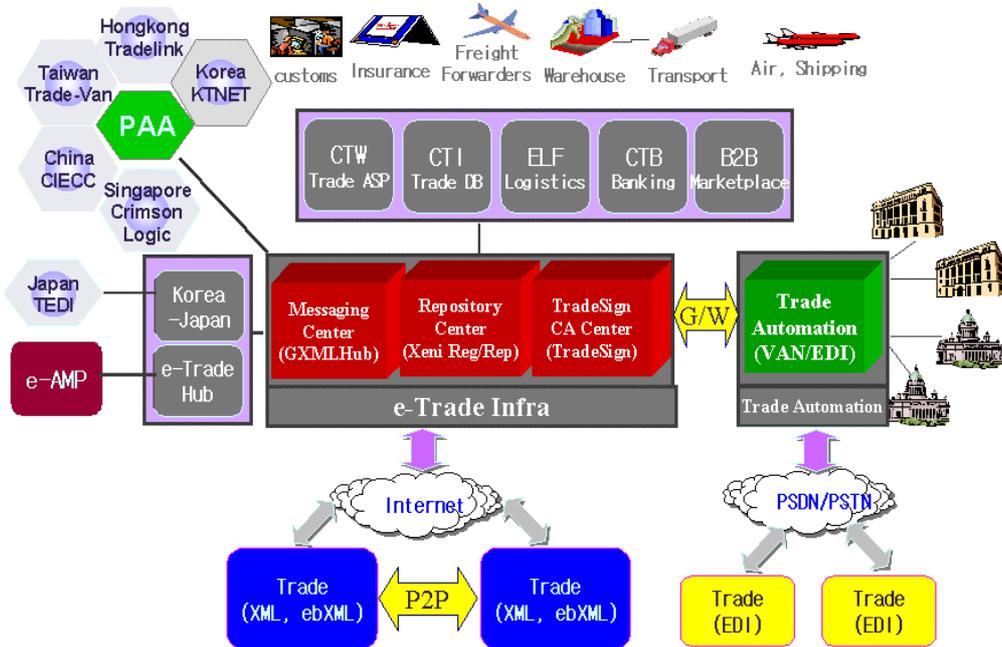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은 특정 정보기술(IT)이나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업무처리절차,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결합된 것으로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수용한 업무처리 절차의 변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다.14) 전자상거래의

12) 정성춘권율, "일본-말레이시아 FTA타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5-19호, 2005.5.27.

13) 매일경제신문, "한-캐나다, FTA본협상 곧 개시", 2005.6. 1. 한국과 캐나다는 금년 3월까지 캐나다와 FTA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예비협의를 마무리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오는 11월 개최 되는 APEC정상회의 이전에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을 두고 있는 전자무역(e-Trade)를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전통무역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림 III-1] 글로벌 전자무역 인프라



자료 : KTNET

따라서 FTA 환경하에서 글로벌 전자무역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해 오고 있는 한-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sup>15)</sup>,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 한-유럽 전자무역네트워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한 전자무역네트워크화 하는 전략추진이 중요하다. 특히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한일 양국이 종이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KTNET과 일본의 TEDI 중심으로 한일 전자무역 기반 시스템 및 한일 e-마켓플레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AMP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2003년 7월 한일간 e-Asia Marketplace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상담회가 개최되어 우선적으로 기

14) 심상렬, "한국 수출기업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구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12. p.14.  
 15) 2000년 7월부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7개국으로 설립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연망(Pan Asian e-Commerce Alliance : PAA)이 무역자동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전자무역 EDI 사업자들이 해당 국가를 대표 하는 중심(hub)사이트가 되어 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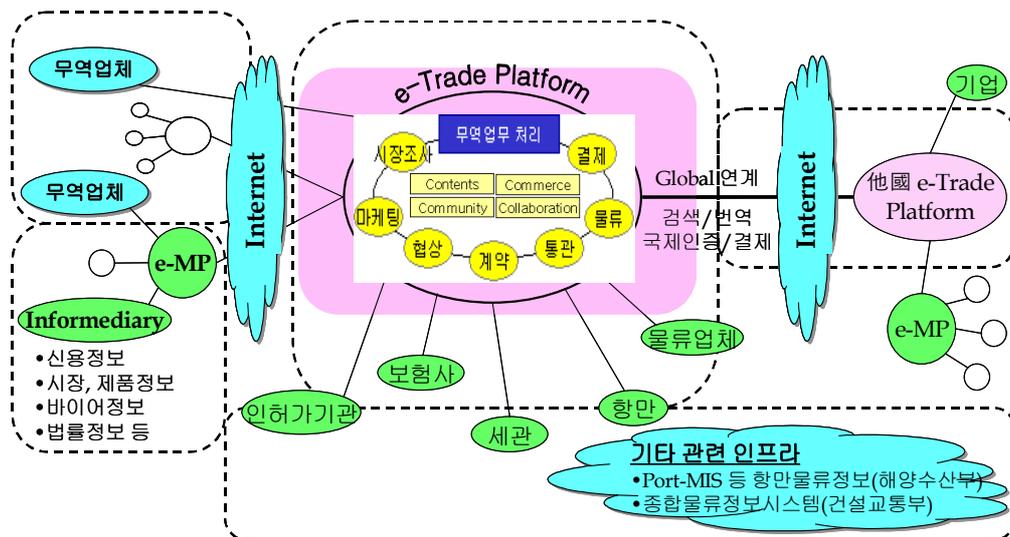
계, 전자, 전기부품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및 제품 데이터베이스 상호 검색과 견적 및 주문, 입찰 업무 등을 시행키로 하였다.

<표 III-1> PAA회원사의 현황

국가/사업자	사업체형태/지분구조	매출액	직원수
한국KTNET	주식회사 무역협회 100%지분	408억원	140명
싱가포르/Crimson Logic	주식회사 무역개발공사,항만청 등 4개 공공기관소유	356억원	510명
홍콩Tradelink	주식회사 홍콩행정청 : 45%, 기타 55%	470억원	370명
대만Trade-Van	주식회사 재정부 40%, 민간업체 60%	315억원	220명
중국CIECC	국영조직	160억원	1,000명
일본TEDI	TEDI Club(프로젝트 추진업체와 사용자의 합동그룹)	-	150명
말레이시아 Dagang Net	-	117억원	140명

자료 :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그림 III-2]Global e-Trade Platform Vision



자 료 :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TNET

## 2. e-FTA 추진 필요성

현재 세계무역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지식정보서비스 기반의 전자무역으로 패러다임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B2B의 활성화와 e-마켓플레이스의 급격한 증가로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절차의 4단계 즉, Discovery, Negotiation, Contract, Fulfillment의 각 단계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간에도 무역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공동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며, 국제결제수단의 개발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이 국내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상품자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도되는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s)이나 버추얼 제품(Virtual Products)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 무역도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무역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무역이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무역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21세기에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자무역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e-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수출규모 및 국제 전자상거래 규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II-2〉 국제기구의 전자무역 관련 논의 동향

국제기구	내 용
APEC	역내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 - 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 구현 - 각국별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개별행동계획(IAP) 마련 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 종이 없는 무역 구현
OECD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부과 논의 - 2001.1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발표
UN	ebXML 기반의 국제전자상거래 표준안 마련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 마련 - 2002.3. UNCITRAL의 전자거래 작업반 회의에서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 마련 *세계적 기준이 국내법보다 상위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통일규범 역할
ICC	전자신용장 통일규칙(eUCP)으로 신용장의 전자화 기반 마련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진흥원

각국 정부는 전자무역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유도하기 국제 전자무역 규범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FTA추진전략으로 체결당사국간의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한 사업자 연결 등의 협력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증진된다. 정보통신 측면에서 상호인증체제 구축, 무선통신기술 및 디지털컨텐츠 분야 협력 등으로 상대국 및 제3국으로 정보통신사업 진출이 확대된다.<sup>16)</sup>

## IV. FTA와 e-Trade관련 통상문제

### 1. 통상환경의 변화

역내재화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는 무역효과 뿐만 아니라 역내외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 기업의 생산활동을 역내로 유인하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sup>17)</sup>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실시되고 있는 전자무역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추진되어져 왔다. 이러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발전 가능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반면에 FTA의 e-FTA의 추진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Business Chance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표 IV-1〉 주요국의 전자무역 추진동향

국가	전자무역 비전	추진 현황	주요 특징
영국	e-Business Initiative (UK Online)	- 서류 없는 무역환경 구축 - 모든 정부기관의 EDI 연결 - 인터넷 기반 무역포탈 서비스	- 내각내 특별 전담기구인 e-Envoy 설치운영
미국	세계 전자 무역 추진 주관	- ACS를 통한, 물류, 운송 등의 글로벌 통합시스템구축 - 무역 관련 자료 제출, 납부창구 단일화	- 세계적 다국적기업, 기업 컨소시엄 주도 - 정부 지원(공공부문 투자)
캐나다	-	- Single Window 서비스(ACROSS) - 2004년 이내 온라인 국가 건설	- 인터넷무역 일원화 서비스(OSIS) 구축중
일본	아시아 Hub 구축	- TEDI 중심 무역절차 표준화	- e-AMP 등 아시아권역 통합 등에 관심
싱가포르	-	- 인터넷 기반 무역포탈 서비스 - 수출입허가, 신고 등 EDI화 - 업종별 전용 EDI 네트워크 서비스	- 정부 주도 - 지정사업자 제도 운영 (CrimsonLogic)

자 료 : 산업자원부, 전자무역(e-Trade) 확산전략, 2002.8.

16) 권오성, “전자상거래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4.25. p.272.

17) 최환석, "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p.9.(생산거점을 역내에 마련하고자 할 경우, 기업들은 기존의 생산설비를 역내로 재배치(Relocation)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역내에 설치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설비를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 재배치 하기위해 드는 기존 공장의 폐쇄, 기존장비의 감가상각등의 손실이 재배치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만큼 막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로 전자무역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1)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2) 우리가 내주어야 할 부분, 3)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sup>18)</sup> WTO, OECD, APEC, UN 등 국제 기구는 세계 전자상거래(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및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전자무역환경 정립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1998년 2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WTO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부터 논의의 출발점이 된 후, 2001년 11월에 개최된 카타르 도하에서 전자무역을 포함하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다자간 무역협상)를 출범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였다.

## 2. 시장접근 확대

전자무역의 등장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환경의 변화 중 하나는 시장접근의 확대이다. 이것은 전자무역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역 장벽을 낮추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자가 시장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3. 인프라의 확충

전자무역의 활성화는 이동되는 정보의 양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런 정보 증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효율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자국 내의 정보를 감당하기 위해 자국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S/W측면에서 보면 거래선 발굴(Trade leads)이 가능한 거래선 D/B를 구축 및 운영는 무역거래정보의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s Provider)의 국제적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무역컨텐츠에 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수행하게 되게 되는 것이다. 관련 주요 무역사이트로서는 한국의 경우는 ec21, ecplaza, tpage 등이 있으며, 화교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Alibaba와 매체중심의 무역전문기관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환한 Globalsource 등이 있다. H/W측면에서는 KNET이 기존의 EDI를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개발하여 글로벌한 전자무역을 추진하고 있다.<sup>19)</sup> 전세계는 현재 전자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전자무역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제 전자무역 규범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18) 권오성, "전게서", pp.277~278.

19) 이승관,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12. p.75.

세계적인 전자거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IT 기반의 인프라 확충이다.

#### 4.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법적 과제

현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간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에 대한 국가간 법적 효력 상호인증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관한 예산 및 전문가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sup>20)</sup> 국가간 협력사업을 통한 무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화는 일부문서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제간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문서의 형식을 통일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결제 및 전자인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상호인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볼레로(Bolero)<sup>21)</sup>, 트레이드카드(TradeCard), 1997년 세계 굴지의 13개 은행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제 전자인증기관으로 기본적인 인증서 발급 및 확인서비스 이외에 인증서 발급은행이 인증서 보유회사를 보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덴트러스(Identrus) 등의 서비스는 법적 효력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아직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인 글로벌 전자무역 프로세스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 또는 특정 기관의 시스템에 의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문서, 정보시스템, 기업, 무역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상호연계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세스이며 전자무역 프로세스가 완전한 단일 네트워크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 운영체제의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 및 기술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가 먼저 확립되어야 전자무역 프로세스가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22)</sup>

## V.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

### 1. 개황

FTA 환경의 도래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전자무역산업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20) 이봉수, “전개서”, p.102.

21)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의 약어로 수출입거래에서 무서류화, 선적서류 심사 및 대금결제의 자동화 등을 목표로 하여 유럽해상운송주선인협회(TTClub)와 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SWIFT)가 공동 출자하여 1997년 영국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22) 정계우, “한국 수출기업의 전자무역 구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12.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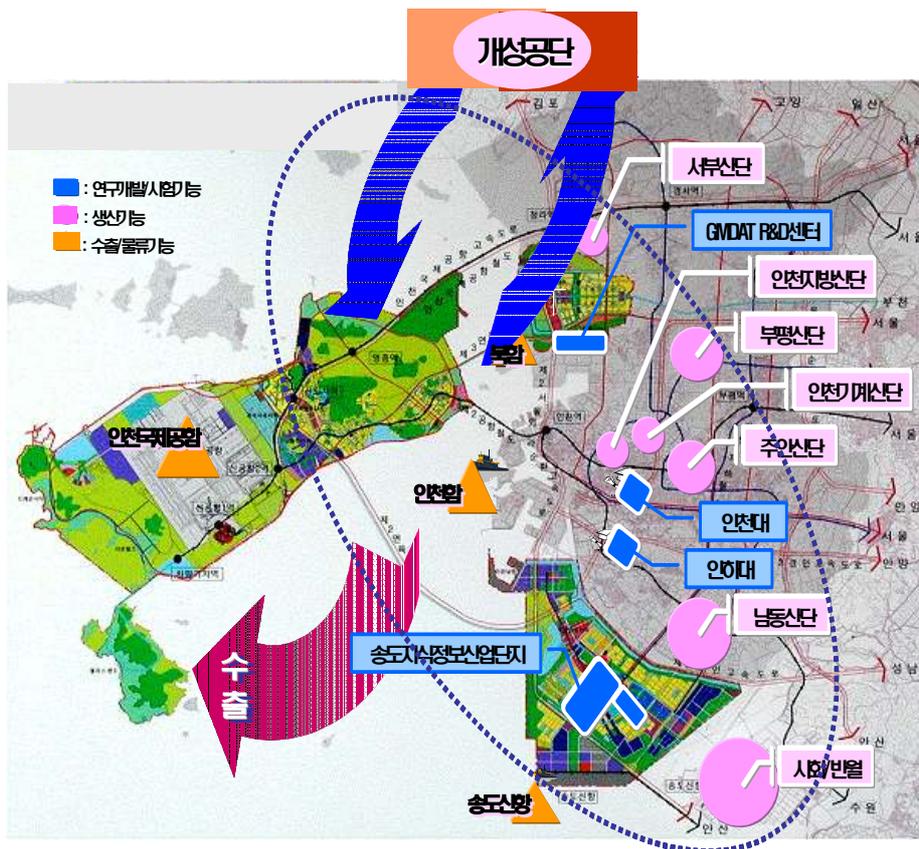
<표 V-1> 전략적 추진방안

구 분	내 용	비 고
전자무역육성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발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추진</li> <li>-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한 바 이를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li> <li>- 부처간 중복추진, 투자조정을 위해서 법제화 필요</li> </ul>	부분적 법개정으로는 국가적 산업육성에 한계
디지털 제품 등 수출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교역형태가 지식정보서비스 기반의 고부가가치형태의 전자무역을 패러다임 전환</li> <li>- 각종 무역정보, 금융, 보안, 교육 등 솔루션, Contents 등 Digital제품, 3D 등 Virtual제품, 컨설팅, 법률, 전시,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상품의 개발, 수출</li> </ul>	새로운 수출품 창출
차세대 인터넷기술 (IPv6) 제품 개발 및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5~10년 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수출상품 개발 절실</li> <li>- IPv6관련 차세대 인터넷 기술 중 Converting기술관련 세계 표준 장악</li> <li>- Streaming제품, 3D Browser, Telematics, IPv6 정보가전 등 최첨단 차세대 상품개발, 수출화</li> </ul>	차세대 수출품 창출
전자무역관련 업체 집적화 (e-Trade Center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무역관련업체 및 지원기관들을 공동시설에 입주시켜 전자무역 경쟁력 향상</li> <li>- 세계 전자무역업체나 e-마켓플레이스들의 대형화, 글로벌화 및 일본, 싱가포르 등의 집적화에 대응</li> <li>- 중복투자방지, 공동시설 이용, 정보 유통성증대 등 비용절감과 협업문화 조성</li> <li>- 공동 수출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해외시장개척 등 전자 무역상품의 개발·생산기지 및 해외 마케팅의 전진기지로서 수출증대와 고용확대에 기여</li> </ul>	※ 문화관광부 : 문화 산업지원센터, 게임 종합센터 ※ 정통부 : 콘텐츠지원센터, IT창업지원센터 → 전자무역센터 위상 및 역할 강화
전자무역 육성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무역업계의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 조성</li> <li>- 국내 전자무역업계 고사위기</li> <li>- 외국자본과 외국 전자무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비</li> </ul>	※ 게임, 문화, Bio 등 생산 부문기금은 많으나 전자 무역 부문은 없음
전자자유무역 지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 물류, 금융이 조화된 전자자유무역지대 설치로 수출증대, 고용창출, 연관산업발전 등을 기대</li> <li>- 인천 신공항 배후단지와 인천항 배후단지를 연계한 장소가 최적지</li> </ul>	※ 인천신공항 배후단지내에서 설치되는 관세자유지역(인천 경제자유 구역 등)
전자무역종합상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무역의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방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자무역 종합상사 육성</li> <li>-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전자무역 중개기관들을 적극 육성</li> </ul>	

자료 : 자체정리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와 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상환경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자무역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전자무역관련 업체의 집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자무역업계의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조성하여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전자무역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의 새로운 비즈니스도래에 따른 전자자유무역 지대의 설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무역시대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의 능동적인 진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sup>23)</sup>

[그림 V-1] 인천신공항지역 배후단지 개발 추진계획 현황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송도테크노파크정책연구실

23) Hoffman, D. L. and Novak, T. P., "A New Marketing Paradigm for Electronic Commerce", Project 2000 Working Paper, Feb. 19, 1996.

〈표 V-2〉 Business Chance와 e-FTA추진방안

구 분	내 용	비 고
국제전자조달시장 (g-B2G)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조불 규모의 국제조달시장을 개척<sup>24)</sup></li> <li>·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국제입찰의 전자화로 국제조달시장이 전자무역 시장으로 Open</li> <li>·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장비 중 70% 이상이 외산제품으로 조달 시장역조현상 심각</li> <li>· 국제입찰 통합시스템 및 국제입찰 전문대행회사 설립에 정부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무역시장 점유율=2.5%</li> <li>※ 국제조달시장 점유율= 0.02%</li> </ul>
전자자유무역시장 (e-FTA)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184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체결추진은 타국에 비해 아직은 부진한 실정임</li> <li>· 자유무역국가간 무관세 전자무역 활성화</li> <li>·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추진중이나 현재 담보상태</li> <li>· 전자자유무역 solution(e-FTA) 개발 및 전세계 FTA 시장에 판매</li> </ul>	
※ 국제전자구상무역시장(g-G2G)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무역의 20~30%가 물물교역 형태인 구상무역이었음</li> <li>· 이 구상무역을 G2G방식의 전자무역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li>· 우리나라는 IMF이후 한국/인도네시아, 한국/러시아간 구상무역 추진사례 있음</li> </ul>		

자 료 : 자체정리

〈표 V-3〉 e-FTA단계별 추진전략

단 계	내 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FTA간 e-Trade Hub체제 구축</li> <li>· 한-FTA의 e-MP구축 및 MP간 기업, 제품 DB상호검색 및 상호견적 및 주문, 입찰 프로그램구축</li> <li>· 한-FTA의 추진 시범추진사례 개발 및 추진</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브와 업종 MP간 연계(2~3개 업종)</li> <li>· 허브기능의 고도화</li> <li>· 한-FTA 추진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li> <li>· 물류,보험,운송,통관,지불 등의 연관된 서비스 지원시스템 확립</li> <li>· 전자무역인프라를 통한 서류중계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통지 등)</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브 포털과 타글로벌 MP간의 연동을 통한 거래 Network확대</li> <li>· 해외 판매를 위한 바이어 매칭 서비스 제공</li> <li>· 해외물류 포털 사이트와 연동을 통한 해외물류기능 지원</li> <li>· 국가간 거래를 위한 제품,업체 Data Base보완 강화</li> <li>· e-Hub 확대를 통한 기반구축</li> <li>· 한-FTA SCM구출을 통한 B2B간, 역내간 업무효율화 지원</li> </ul>

자 료 :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거래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2002년도 추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11.23, p.113내용의 재구성

24) 이상진·정재승, “국제조달시장의 전자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12.25. p.138.(전 세계 국제조달시장의 규모는 세계 수출시장의 약 83%인 5.5조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국제조달시장은 미국으로 1조(연방 2.5천, 주정부 3천, 지방 공공기관 7천억불)달러규모에 이르며, 전 세계 30만 이상 수요기관에서 연간 300만건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점유율은 2001년 0.2% 정도로 추정되고, 미국정부조달시장에 0.2%, UN조달시장에 0.03% 차지하고 있다.)

## VI. 결 론

21세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단일시장으로서의 글로벌경제가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전자무역에 의해 열리고 있다.<sup>25)</sup> 이에 따라 IT강국에 걸맞은 전자무역의 Hub국가로서 한국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FTA의 활성화 추세에 발 맞추어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이 잇따라 개방돼 유망 IT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체결돼있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교역이 전체 교역의 45%가 넘어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교역이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양허안을 제출해 놓고 내년 말까지 완전타결을 목표로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제 정부조달시장은 단순히 가격으로 흥정하는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복잡한 절차규정이 나 영문서식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등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공략하기 어렵다.

전자무역을 활용한 바이어거래선의 조기 확보 등 정보력을 극대화하여 큰 수출시장으로 부상되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정부조달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가 어디인지, 또 개방 폭과 진입장벽 완화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신속히 전달 전자무역업체가 현지 국가에 맞는 공략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최대의 바이어는 정부다. 각국 정부의 조달시장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15%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연간 3조달러 내외의 초대형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협상을 진행중인 20여개 국가의 IT조달 규모만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여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GPA비가입국도 정부 간 협상 여하에 따라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 제고도 필요하다.<sup>26)</sup>

주요국의 정부조달시장이 전자상거래화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글로벌한 전자무역추진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정부조달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우려되는 수요 잠식에 대한 업계의 효율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FTA협정 체결 및 시장개척에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전세계 FTA 시장에 전자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수출을 강화하는 것이다. FTA 체제하에서의 전자무역 모델인 e-FTA, 지식기반의 e비즈니스모델, FTA 협정 체결과 더불어 개방되는 상대국 정부조달시장 개척 모델도 좋다. 이제 전 세계는 FTA의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다. FTA 시장은 역내기업들에게 시장이 무한확대되는 반면에 경쟁도 격화되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무역시장이다. FTA 시장을 수출전략시장으로 인식하고 21세기 글로벌 환경하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5) 최용복,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Metamediary의 기능과 역할”,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2.12. p.105.

26) 전자신문사설, 국제 정부조달시장 뚫으려면, 2005.5.27.

## 참 고 문 헌

- 권오성, “전자상거래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4.25.
- 김양희·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Policy Analysis II)」 01-05, 2001.12.30
- 김세영·박영기, “한·미 FTA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 김진섭, “FTAA의 추진배경과 역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세학회지」, 제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2
- 매일경제신문, “한·캐나다, FTA본협상 곧 개시”, 2005.6. 1.
- 심상렬, “한국 수출기업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구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12.
- 안세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3.4.1..
- 이봉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협력강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4.
- 이상진·정재승, “국제조달시장의 전자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12.25.
- 이승관,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12.
- 전경련, “한·칠레 FTA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2005.5.29.
- 정대철, “통상환경변화와 지방산업육성의 효율화”,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2003.
- 정성춘·권율, “일본-말레이시아 FTA타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5-19호, 2005.5.27.
- 정재우, “한국 수출기업의 전자무역 구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12.
-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거래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2002년도 추계 정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11.23
- 최용록,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Metamediary의 기능과 역할”,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2.12.
- 최환석, “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6.
- Bhagwati, J.(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in K. Anderson and R. Blackhurst (eds.),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Brighton : Harvester-Wheatheaf.
- Hoffman, D. L. and Novak, T. P., "A New Marketing Paradigm for Electronic Commerce", *Project 2000 Working Paper*, Feb. 19, 1996.